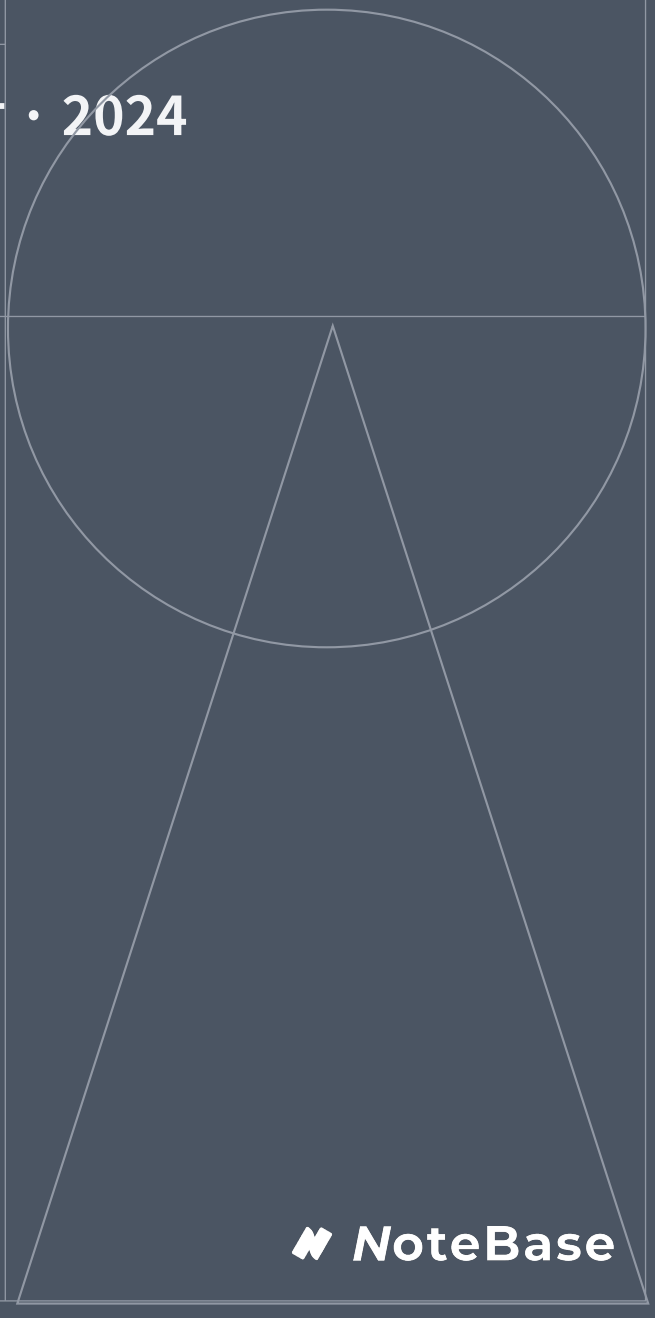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학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학 · 2024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학 · 2024

문 1. 리튼(Litton)의 산림경관 유형분류에서 기본적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형경관(feature landscape)

② 위요경관(enclosed landscape)

③ 초점경관(focal landscape)

④ 관개경관(canopied landscape)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리튼의 산림경관 유형분류에서 기본적 유형과 보조적 유형을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형경관은 한 요소가 두드러져 주변 경관을 지배하는 경관이다. 위요경관은 분지처럼 둘러싸인 공간감이 중심이 되는 경관이다. 초점경관은 선형 요소들이 한 점으로 수렴하는 경관이다. 관개경관은 수관이 머리 위 덮개를 이루는 경관으로, 기본적 유형이라기보다 보조적 성격으로 분류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지형경관(feature landscape)은 리튼이 제시한 기본적 경관유형에 해당한다. 지배적인 시각 요소가 전면에 드러나는 유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2번 O. 위요경관(enclosed landscape)은 주변이 둘러싸여 공간의 폐쇄감이 느껴지는 기본적 유형이다. 개방감보다 둘러싸임이 판단 기준이 된다.
3번 O. 초점경관(focal landscape)은 길, 계곡, 수목열 같은 선형 요소가 시선을 한 지점으로 모으는 기본적 유형이다. 수렴축이 보이면 초점경관으로 판단할 수 있다.
4번 X. 틀린 부분은 관개경관을 기본적 유형이라고 본 점이다. 관개경관(canopied landscape)은 숲의 상층 수관이 시각적 천장을 이루는 유형으로 보조적 성격이 강하며, 기본적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관개경관도 리튼의 분류명칭에는 포함되므로 무조건 기본적 유형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은 분류명칭 자체가 아니라 기본적 유형인지 보조적 유형인지를 구분하는 점을 노린 문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리튼 유형 문제가 나오면 먼저 시각구조가 주된 장면 구성인지, 아니면 상층 수관이나 일시적 효과 같은 보조적 성격인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지배 요소, 둘러싸임, 수렴축은 기본적 유형 쪽 신호이고, 수관 덮개는 관개경관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기본은 지배, 위요, 초점, 파노라마이고 관개는 수관이 덮는 보조 유형이다.

NoteBase

문 2. 경관의 인지적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각적 복잡성과 시각적 선호는 비례 관계에 있다.

② 시각적 복잡성과 시각적 투과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③ 시각적 복잡성과 시각적 흡수력은 비례 관계에 있다.

④ 시각적 복잡성과 시각적 훼손 가능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경관의 인지적 분석에서 시각적 복잡성, 시각적 투과성, 시각적 흡수력, 시각적 훼손 가능성, 시각적 선호의 관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각적 복잡성은 경관 요소의 종류와 배열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하게 지각되는가를 뜻한다. 시각적 투과성은 시선이 경관 내부로 얼마나 멀리 통과하는가를 뜻한다. 시각적 흡수력은 새로운 시설이나 변화가 들어와도 경관이 그것을 얼마나 눈에 덜 띄게 받아들이는가를 뜻한다. 시각적 훼손 가능성은 변화가 들어왔을 때 경관 훼손이 얼마나 쉽게 드러나는가를 뜻한다. 시각적 선호는 사람들이 그 경관을 얼마나 선호하는가에 대한 종합 평가이므로 복잡성과 단순한 직선 관계로 보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시각적 복잡성과 시각적 선호는 단순 비례 관계가 아니다. 경관 선호는 복잡성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통일성, 명료성, 신비감 등과 함께 판단되므로 복잡하다고 언제나 더 선호되는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비례 관계'이다. 올바르게는 '시각적 복잡성과 시각적 선호는 항상 비례하지 않으며, 적정 수준의 복잡성과 다른 선호 요인이 함께 맞을 때 선호가 높아질 수 있다'이다.
② O. 시각적 복잡성이 높아지면 요소가 많고 시야가 분절되기 쉬워 시선이 멀리 통과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시각적 복잡성과 시각적 투과성은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로 본다.
③ O. 시각적 복잡성이 큰 경관은 다양한 요소가 시각적 변화를 분산시켜 외부 변화를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지게 만든다. 따라서 시각적 복잡성과 시각적 흡수력은 비례 관계로 본다.
④ O. 시각적 복잡성이 큰 경관은 변화 요소를 흡수하는 힘이 커서 훼손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시각적 복잡성과 시각적 훼손 가능성은 반비례 관계로 본다.

오답 포인트

①은 '복잡할수록 선호도도 높다'는 단순 연상 때문에 고르기 쉽다. 그러나 선호는 복잡성 하나의 크기가 아니라 복잡성과 통일성의 균형으로 판단하는 개념이므로, 복잡성과 선호를 기계적으로 비례 관계로 묶으면 틀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복잡성이 커질 때 시야가 통과하기 쉬운지, 변화가 눈에 띄기 쉬운지부터 본다. 복잡성이 크면 대체로 투과성은 낮아지고 흡수력은 높아지며 훼손 가능성은 낮아진다. 선호는 복잡성 하나만으로 직선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복잡하면 덜 뚫려 보이고 더 잘 흡수한다. 선호는 복잡성 단독 비례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이다.

NoteBase

문 3. 「조경설계기준(KDS 34 10 00:2016)」상 보행자 공간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장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② 보행자 전용도로의 너비는 1.5m 이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경사로나 계단을 설치한다.

③ 경사로는 어린이나 노약자, 신체장애인이 스스로 오를 수 있는 기울기로서 최대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보행자 공간과 공공교통 간에 원활한 연계를 위한 연결시스템을 조직하고 정비하며 어린이, 노약자들의 안전과 활동성을 확보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설계기준(KDS 34 10 00:2016)」의 보행자 공간 설계 기준 중 설치 대상, 공공교통 연계, 보행자 전용도로 폭, 경사로 최대 기울기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보행자 공간은 차량 통행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이 위협받기 쉬운 곳에 두는 보행 중심 공간이다.
경사로는 어린이, 노약자, 신체장애인도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울기를 제한한 접근 시설이다.

핵심 구분

보행자 공간 항목의 원문은 ① 차량 통행으로 보행 장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하고, ② 보행자 공간과 공공교통 간 연결시스템을 조직·정비하며, ③ 보행자 전용도로의 너비는 1.5m 이상으로 하고, ④ 경사로는 최대 8%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문항의 핵심 구분은 숫자 기준인 1.5m와 8%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준 원문에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장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② O. 기준 원문에 '보행자 전용도로의 너비는 1.5m 이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경사로나 계단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③ X. 기준 원문은 '경사로는 ... 최대 8%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선지는 이를 12%로 바꾸어 수치가 틀렸다. 일반 경사로 항목의 예외적 완화치인 1/12와도 다른 수치이다.
- 틀린 표현: '최대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올바른 표현: '최대 8%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O. 기준 원문에 '보행자 공간과 공공교통간에 원활한 연계를 위한 연결시스템을 조직하고 정비하며 어린이, 노약자들의 안전과 활동성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경사로 수치만 살짝 바꾼 함정이다. 수험생이 '1/12'라는 다른 경사 기준을 어렴풋이 기억한 채 이를 곧바로 '12%'로 오독하면 쉽게 틀린다. 이 문항은 문장 구조보다 수치 기준을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당락을 가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경설계기준형 문항에서 선지 대부분이 원문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경우에는 먼저 숫자와 한계치를 확인한다. 보행자 공간 문제에서는 보행자 전용도로 1.5m 이상, 경사로 최대 8%라는 두 수치를 먼저 대조하면 오답 선지를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보행자 공간은 1.5m 이상, 경사로는 8% 이하라는 조합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4. 「자연환경보전법」상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자연환경보전법」상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주기, 제출 주체, 비용 지원, 지도 축척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 정보를 표시한 지도이다. 생태·자연도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도의 제도이므로 축척 기준도 다르다.

핵심 구분

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년마다 다시 작성하며,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제출하고,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한다는 점이 맞다.
② X: 2만5천분의 1 이상은 생태·자연도의 축척 기준이고,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기준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이다. 올바른 표현은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이다.
③ O: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조이므로 취지가 맞다.
④ O: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오답은 ②의 축척 숫자를 생태·자연도와 도시생태현황지도에서 뒤바꾸는 함정이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축척 기준이라고 보면 틀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시생태현황지도 문제가 나오면 먼저 생태·자연도와 구분한 뒤 숫자 기준을 확인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년마다 재작성, 5천분의 1, 제출의무와 비용지원 규정이 있다는 흐름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시 상세지도이므로 5천분의 1, 생태·자연도는 전국 단위 기본지도이므로 2만5천분의 1이라고 정리한다.

NoteBase

문 5. 서울시 노원구의 한 건물을 조경진흥시설로 지정하고자 한다. 조경진흥법령상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할 것

②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④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시행령상 수치요건 중 중소기업자 비율 30퍼센트와 시설 사용면적 비율 50퍼센트를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조경진흥시설은 조경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법령상 요건에 따라 지정한 집적시설이다.

핵심 구분

조경진흥법 제7조와 그 위임을 받은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정 요건은 5개 업체 이상 입주, 입주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자 30퍼센트 이상, 조경사업자 사용시설 및 지원시설 면적 50퍼센트 이상, 공동이용시설 설치이다. 중소기업자 비율 30퍼센트와 사용면적 비율 50퍼센트를 바꾸면 오답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시행령 제6조의 지정 요건 중 하나는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하는 것이다.
② O: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③ X: 틀린 이유는 면적 기준을 100분의 30으로 낮춰 적었기 때문이다. 틀린 표현은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다. 올바른 표현은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이다.
④ O: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맞는 선지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②의 30퍼센트 수치를 면적 기준에 그대로 옮겨 놓은 함정이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중소기업자 비율과 조경사업자 사용면적 비율을 같은 수치로 외운 경우가 많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진흥시설 지정 요건 문제는 숫자부터 분리해 본다. 사람 구성 요건은 중소기업자 30퍼센트이고, 공간 사용 요건은 조경사업자 사용시설과 지원시설 면적 50퍼센트라는 두 축으로 나누면 바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조경진흥시설은 5개 업체, 중소기업자 30퍼센트, 사용면적 50퍼센트, 공동이용시설 설치의 네 가지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생활권 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체육공원의 설치기준과 유치거리는 제한이 없고,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② 소공원의 설치기준은 제한이 없고 유치거리는 250미터 이하, 규모는 5백제곱미터 이상이다.

③ 도보권 근린공원의 설치기준은 제한이 없고 유치거리는 1천미터 이하, 규모는 3만제곱미터 이상이다.

④ 어린이 공원의 설치기준은 제한이 없고 유치거리는 500미터 이하, 규모는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생활권공원과 체육공원의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유치거리는 공원이 주민을 유인하는 서비스 반경을 뜻한다. 설치기준은 어떤 위치나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고, 규모는 최소 면적 기준이다.

핵심 구분

소공원은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가 모두 제한 없음이다. 어린이공원은 유치거리 250미터 이하, 규모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다. 도보권 근린공원은 유치거리가 1천미터 이하이고 규모는 3만제곱미터 이상이다. 체육공원은 유치거리는 제한 없지만 설치기준이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로 정해져 있고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체육공원은 유치거리는 제한 없고 규모도 1만제곱미터 이상이 맞지만, 설치기준이 '제한 없음'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설치기준과 유치거리는 제한이 없고'이다. 올바르게는 '체육공원은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유치거리는 제한이 없으며,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이다.
2번: X. 소공원은 설치기준만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치거리와 규모도 모두 제한이 없다. 틀린 표현은 '유치거리는 250미터 이하, 규모는 5백제곱미터 이상'이다. 올바르게는 '소공원은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가 모두 제한 없다.'이다.
3번: O. 도보권 근린공원은 설치기준이 제한 없고, 유치거리는 1천미터 이하이며, 규모는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선지 내용이 맞다.
4번: X. 어린이공원은 규모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은 맞지만 유치거리가 500미터 이하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유치거리는 500미터 이하'이다. 올바르게는 '어린이공원은 유치거리 250미터 이하, 규모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의 기준을 서로 섞거나, 체육공원의 '유치거리 제한 없음'을 '설치기준도 제한 없음'으로 확대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가 서로 다른 칸이라는 점을 흐리게 만드는 선택지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원 유형 문제가 나오면 먼저 공원 종류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를 각각 따로 대조하면 된다. 한 항목이 맞더라도 다른 항목까지 자동으로 맞다고 보면 오답이 된다.

암기 포인트

소공원은 모두 제한 없음, 어린이공원은 250미터·1천5백제곱미터, 도보권 근린공원은 1천미터·3만제곱미터, 체육공원은 기능 발휘 장소·1만제곱미터이다.

NoteBase

문 7.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평가등급 중 일정 수준 자연성이 있어 복원 후 생태적 가치 향상의 잠재성이 높으며 조건부 대체가 가능한 비오톱 등급은?

① Ⅰ등급
② Ⅱ등급
③ Ⅲ등급
④ Ⅴ등급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 중 Ⅱ등급의 의미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비오톱 평가등급은 각 비오톱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복원 가능성을 5개 등급으로 나눈 체계이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생태적 가치가 높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

핵심 구분

Ⅱ등급은 일정 수준의 자연성이 있어 복원 후 생태적 가치 향상 잠재성이 높고 조건부 대체가 가능한 비오톱이다. Ⅰ등급은 자연성이 높아 대체조성이 불가능하여 절대적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이고, Ⅲ등급은 자연성이 더 낮아 중·장기간 재생이 필요한 비오톱이며, Ⅴ등급은 자연에 의한 재생가능성이 없는 비오톱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제시된 설명은 Ⅰ등급이 아니라 Ⅱ등급의 의미이다. 틀린 표현은 "I등급"이다. 올바르게는 "II등급"이다. Ⅰ등급은 인간 간섭이 없거나 장기간 안정되고 성숙하여 자연성이 높고, 대체조성이 불가능해 절대적인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이다.
2번 O: 제시된 "일정 수준 자연성이 있어 복원 후 생태적 가치 향상의 잠재성이 높으며 조건부 대체가 가능한 비오톱"은 Ⅱ등급의 정의에 해당한다. Ⅱ등급은 완전 보전대상인 Ⅰ등급보다는 낮지만, 복원과 관리에 따라 생태적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비오톱이다.
3번 X: Ⅲ등급은 인간 간섭이 높고 훼손에 대한 예민성이 낮으며 자연성이 낮아 중·장기간 재생이 필요한 비오톱이다. 틀린 표현은 "III등급"이다. 올바르게는 "II등급"이다. 제시문처럼 복원 후 가치 향상 잠재성이 높고 조건부 대체가 가능한 단계는 Ⅲ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Ⅱ등급이다.
4번 X: Ⅴ등급은 과도한 에너지 이용 및 순환체계 단절로 자연에 의한 재생가능성이 없는 비오톱이다. 틀린 표현은 "V등급"이다. 올바르게는 "II등급"이다. 제시문은 재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단계가 아니라 일정 수준 자연성과 복원 잠재성이 남아 있는 단계를 말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등급 문제는 보전가치와 복원가능성을 함께 읽어야 한다. "절대적 보전"이면 Ⅰ등급이고, "복원 후 가치 향상 잠재성"과 "조건부 대체 가능"이 함께 나오면 Ⅱ등급이며, "재생가능성이 없음"이면 Ⅴ등급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오톱 등급 문항이 나오면 먼저 절대보전인지, 조건부 대체가 가능한지, 재생가능성이 거의 없는지를 구분한다. 절대보전은 Ⅰ등급, 조건부 대체 가능은 Ⅱ등급, 중·장기 재생 필요는 Ⅲ등급, 자연 재생이 불가능하면 Ⅴ등급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Ⅰ 절대보전, Ⅱ 조건부 대체 가능, Ⅲ 중·장기 재생 필요, Ⅴ 자연재생 불가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8. <보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대한 규정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도시공원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가)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가)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① 3
② 5
③ 7
④ 10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기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때 도시공원 결정이 언제 효력을 잃는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도시공원 결정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공원조성계획은 해당 공원을 실제로 어떻게 조성할지를 정한 계획이다.

핵심 구분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도시공원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으면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는 10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3년은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기간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3년'이고, 올바른 표현은 '10년'이다.
② X: 5년도 법정 실효 기간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5년'이고, 올바른 표현은 '10년'이다.
③ X: 7년 역시 법 조문에 없는 기간이다. 틀린 표현은 '7년'이고, 올바른 표현은 '10년'이다.
④ O: 도시공원 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으면 그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하므로 10년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숫자만 바꿔 놓은 법조문 빈칸 문제이므로 막연한 기억으로 풀면 3년, 5년, 7년 같은 다른 기간 규정과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기간 자체보다 '10년이 되는 날까지'와 '그 다음 날 효력 상실'을 함께 묶어 기억하지 못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조문 빈칸형에서 기간만 묻는 문항이 나오면 먼저 대상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복원한 뒤 숫자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이 문항은 '도시공원 결정 + 공원조성계획 고시 없음 + 10년 경과 + 다음 날 실효'의 구조로 잡으면 바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도시공원 결정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으면 10년 후 다음 날 실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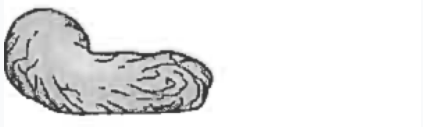
Note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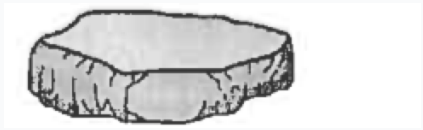
문 9. <보기>에서 설명하는 일본 정원의 오행석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지형석(枝形石)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뭇가지 모양의 돌이다. 돌의 좌우상하 어디엔가 가지가 돋아 있고, 사선 방향으로 시선을 잡아준다.

① 

② 

③ 

④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요행석의 형태 설명을 실제 돌의 윤곽과 연결해 지형석을 식별하는 문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전체가 위로 곧게 솟은 첨두형에 가까워 한쪽으로 휘거나 가지처럼 꺾여 나가는 선이 약하다. 틀린 표현은 '지형석에 해당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수직적 인상이 강한 돌로 지형석의 사선 유도 특징과 거리가 있다'이다.
② O: 상단이 평평한 입석이 한쪽으로 굽어 있으며, 몸체의 축이 비스듬히 흘러 가지가 뻗는 인상을 만든다. 보기에서 설명한 지형석의 형상과 시선 유도 방식에 맞는다.
③ X: 낮고 옆으로 길게 누운 형상이라 가지가 돌출된 입체감보다 수평적 안정감이 먼저 보인다. 틀린 표현은 '지형석에 해당한다'이다. 올바르게는 '가로로 눕는 형상으로 지형석의 사선 방향성은 약하다'이다.
④ X: 넓고 편평한 판석형이라 상하좌우 중 어느 한 방향으로 가지가 꺾여 나가는 중심 축이 뚜렷하지 않다. 틀린 표현은 '지형석에 해당한다'이다. 올바르게는 '평판형 돌로서 지형석의 가지형 윤곽과 다르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돌의 표면 질감보다 전체 윤곽과 방향성을 봐야 하는 문제이다. 1번처럼 세워진 돌을 모두 입석 계열로만 보고 고르거나, 4번처럼 상부가 넓은 돌을 눈에 잘 띈다는 이유로 고르면 '가지처럼 휘는 선'이라는 핵심 조건을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요행석 문제는 먼저 돌의 큰 실루엣을 본다. 그다음 한쪽으로 꺾이거나 돌출된 축이 있어 시선을 사선으로 끌어가는지 확인하면 지형석을 빠르게 가릴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지형석은 가지처럼 한쪽으로 휘어 사선 시선을 만드는 돌이다.

NoteBase

문 10. <보기>에서 설명하는 잔디관리 기법은?

<보기>
• 토양층이 지나치게 단단하게 굳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행되는 작업이다.
• 토양의 표면까지 잔디만 주로 잘라주는 작업이다.
• 대취를 제거하고 밀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표토층이 건조할 때 시행해야 효과가 높다.

① 버티컬모잉(vertical mowing)
② 코어링(core aerification)
③ 스파이킹(spiking)
④ 슬라이싱(slicing)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버티컬모잉, 코어링, 스파이킹, 슬라이싱의 작업 방식과 목적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버티컬모잉은 수직날로 잔디 관부와 대취층을 세로로 절단하여 대취를 제거하고 밀도 향상을 유도하는 작업이다. 코어링은 속이 빈 타인으로 흙 코어를 뽑아 토양 다짐을 완화하는 작업이다. 스파이킹은 고형 타인으로 작은 구멍만 내는 가벼운 통기 작업이다. 슬라이싱은 칼날로 가는 틈을 내어 토양을 절개하는 작업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버티컬모잉은 잔디를 토양 표면 가까이까지 수직으로 절개하여 대취를 제거하고 측지 절단으로 새 분얼을 유도해 밀도를 높이는 작업이므로 보기의 설명과 가장 잘 맞는다.
2번 X: 틀린 표현은 코어링이라고 본 부분이다. 코어링은 속이 빈 타인으로 흙 코어를 뽑아 다짐을 푸는 작업이지, 잔디를 토양 표면까지 주로 잘라 대취를 제거하는 작업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토양 코어를 제거하여 통기성과 배수성을 높이는 작업이다.
3번 X: 틀린 표현은 스파이킹이라고 본 부분이다. 스파이킹은 뾰족한 타인으로 구멍을 내는 방식이라 표면 교란이 작고 대취 제거 효과도 제한적이다. 올바르게는 고형 타인으로 작은 구멍을 내는 간이 통기 작업이다.
4번 X: 틀린 표현은 슬라이싱이라고 본 부분이다. 슬라이싱은 칼날로 가는 홈을 내어 물과 공기의 이동이나 종자 활착을 돕는 작업이지, 대취 제거와 밀도 향상을 주목적으로 잔디를 세워 자르는 작업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토양에 좁은 절개 홈을 만드는 작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첫 문장의 토양층 개선 표현만 보면 2번 코어링으로 기울기 쉽다. 그러나 보기의 결정적 단서는 '토양 표면까지 잔디를 잘라준다', '대취를 제거한다', '밀도를 높여준다'는 부분이며, 이는 버티컬모잉의 식별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흙 코어를 뽑아 다짐을 풀면 코어링, 구멍만 찌르면 스파이킹, 칼날로 홈을 내면 슬라이싱, 대취 제거와 밀도 향상을 위해 잔디를 수직 절단하면 버티컬모잉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대취 제거와 밀도 향상은 버티컬모잉, 흙 코어 제거는 코어링이다.

NoteBase

문 1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방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원의 총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및 조성녹지를 포함한 녹지의 면적을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서로 다른 주제별로 조성된 정원을 5개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지방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기준과 국가정원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녹지면적은 원형보전지와 조성녹지 등을 포함한 녹지의 면적이다.

핵심 구분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의 지방정원 기준은 총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녹지면적 40퍼센트 이상, 체험시설과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안내실·관리실의 구비이다. 서로 다른 주제별로 조성된 정원을 5개 이상 포함할 것은 별표 1의2 제1호의 국가정원 기준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지방정원의 총면적은 원칙적으로 10만제곱미터 이상이다. 다만 역사적·향토적·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면 10만제곱미터 미만도 가능하므로 옳다.
2번: O. 지방정원은 정원의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선지의 "원형보전지 및 조성녹지를 포함한 녹지"라는 표현은 녹지면적의 내용을 풀어 쓴 것으로 맞다.
3번: X. 틀린 표현은 "서로 다른 주제별로 조성된 정원을 5개 이상 포함"이다. 이 요건은 국가정원 기준이고 지방정원 기준에는 없다. 올바르게는 "지방정원은 서로 다른 주제별 정원 5개 이상 요건이 없고, 총면적·녹지면적·체험시설·편의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면 된다."이다.
4번: O. 지방정원은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의2 제2호 나목 2)에서 직접 요구하는 기준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면적 10만제곱미터와 녹지면적 40퍼센트는 지방정원과 국가정원 문제에서 자주 보이므로, 여기에 "주제별 정원 5개 이상"까지 묶어서 외우면 틀리기 쉽다. 3번은 국가정원 기준을 지방정원 기준으로 바꿔 넣은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원 관련 법령 문제는 먼저 대상이 지방정원인지 국가정원인지부터 확인한 다음, 면적 기준, 녹지 비율, 주제정원 수, 편의시설 요구 여부를 항목별로 대조하면 된다. 특히 "5개 이상"이 보이면 국가정원 기준인지부터 점검하게 된다.

암기 포인트

지방정원은 10만·40·편의시설이고, 국가정원은 여기에 주제정원 5개 이상 기준이 추가된다.

NoteBase

문 12. 「자연환경보전법」상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은?

① 생태축
② 대체자연
③ 생태통로
④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자연환경보전법」상 법정 용어 중 생태축의 정의를 다른 유사 개념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용어 풀이

생태축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연속성을 위해 중요한 지역들을 이어 주는 생태적 서식공간이다.

핵심 구분

생태축은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공간이다. 생태통로는 도로나 댐 등으로 끊긴 서식지를 잇기 위해 설치하는 인공적 생태 공간이다. 대체자연은 기존 자연환경과 비슷하거나 보완적인 기능을 하도록 조성한 것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지정하여 보호하는 제도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축은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2번 X: 대체자연은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성하는 것이다. 틀린 표현은 "대체자연"이다. 올바른 표현은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은 생태축이다"이다.
3번 X: 생태통로는 도로·댐·하굿둑 등으로 끊긴 서식지의 단절을 막고 야생동식물의 이동을 돕기 위해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공간이다. 틀린 표현은 "생태통로"이다. 올바른 표현은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핵심 생태공간을 연결하는 개념은 생태축이다"이다.
4번 X: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을 지정·고시한 보호지역이다. 틀린 표현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다. 올바른 표현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서식공간은 생태축이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생태축과 생태통로를 같은 말로 보면 틀리기 쉽다. 생태축은 광역적 연결 개념이고, 생태통로는 단절 구간에 설치하는 구체적 시설 또는 공간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연결하는 공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생태축을 먼저 떠올리고,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인지, 조성된 대체 공간인지, 지정된 보호지역인지를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생태축은 잇는 축, 생태통로는 넘는 길,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묶어 두는 보호구역, 대체자연은 새로 조성한 자연이다.

NoteBase

문 13. 중국 명(明)대 말기의 조원(造園) 기술서인 『원야(園冶)』의 차경(借景)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차(遠借) - 멀리 있는 경을 빌리는 것
② 인차(隣借) - 가까운 곳의 경을 빌리는 것
③ 앙차(仰借) - 높은 산악의 경을 빌리는 것
④ 부차(俯借) - 변화하는 풍성한 경을 빌리는 것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원야』의 차경 유형을 거리축, 시선축, 시간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원차는 먼 곳의 경관을 끌어들이는 차경으로 구분축은 거리이다. 인차는 가까이 있거나 인접한 경관을 끌어들이는 차경으로 구분축은 거리이다. 앙차는 올려다보이는 높은 곳의 경관을 끌어들이는 차경으로 구분축은 시선 방향이다. 부차는 내려다보이는 낮은 곳의 경관을 끌어들이는 차경으로 구분축은 시선 방향이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관을 빌리는 것은 부차가 아니라 응시이차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원차는 遠借로, 먼 산이나 멀리 있는 경물을 정원 안의 경관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2번: O. 인차는 隣借로, 가까운 곳이나 인접한 곳의 경관을 빌리는 방식이다.
3번: O. 앙차는 仰借로, 위를 올려다보며 높은 곳의 경을 빌리는 방식이다. 높은 산악이나 탑, 구름 같은 상부 경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4번: X. 틀린 부분은 '변화하는 풍성한 경'이다. 변화하는 계절감이나 시시각각 달라지는 풍경을 빌리는 것은 응시이차이고, 부차는 俯借로서 연못, 계류, 낮은 지형처럼 아래를 내려다보며 낮은 곳의 경관을 빌리는 방식이다.

오답 포인트

부차와 응시이차를 섞으면 틀리기 쉽다. 부차는 시선의 방향으로 나누는 유형이고, 응시이차는 시간의 변화로 나누는 유형이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차경 유형은 먼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 것인지부터 본다. 멀고 가까우면 원차·인차, 위와 아래면 앙차·부차, 계절과 시각의 변화면 응시이차로 판단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원·인은 거리, 앙·부는 시선, 응시는 시간이라는 기준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4. <보기>에서 설명하는 단지 내 도로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보행자 통행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지 않은 방식으로 보행자와 차량동선이 전혀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① 보차공존방식
② 보차병행방식
③ 보차분리방식
④ 보차혼용방식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지 내 도로 방식 중 보행자와 차량의 관계를 무엇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보차혼용방식, 보차공존방식, 보차병행방식, 보차분리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차혼용방식은 보행자 동선 개념이 거의 없어서 차량과 보행자가 같은 공간을 그대로 함께 쓰는 방식이다.
보차공존방식은 같은 공간을 함께 쓰더라도 보행자 이용을 전제로 차량 속도와 통행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보차병행방식은 차도와 보행로가 나란히 놓이되 선형적으로 구분되는 방식이다.
보차분리방식은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보차공존방식은 보행자 통행 개념이 도입된 공유형 공간이다. 같은 공간을 쓰더라도 보행자 우선과 안전을 고려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틀린 부분은 보기의 '보행자 통행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보행자 개념이 도입된 공유 방식이 보차공존방식이다.
② X: 보차병행방식은 보행로와 차도가 나란히 배치되는 방식이다. 동일한 공간을 전혀 분리하지 않고 함께 쓰는 방식이 아니다. 틀린 부분은 '동일한 공간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보행 공간과 차량 공간이 병행하여 배치된다.
③ X: 보차분리방식은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제시문처럼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되는 구조와는 반대이다. 틀린 부분은 '전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한다.
④ O: 보차혼용방식은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분리되지 않고 동일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보기의 '보행자 통행 개념이 도입되지 않음', '전혀 분리되지 않음', '동일한 공간 사용'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보차혼용방식과 보차공존방식은 모두 공유 공간처럼 보여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보차공존은 보행자 개념을 전제로 한 공유이고, 보차혼용은 그 개념 자체가 약하거나 없는 혼재 상태라는 점이 차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나 보기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공간을 그대로 함께 쓴다', '분리되지 않는다', '보행자 안전이 취약하다'는 표현이 나오면 보차혼용방식을 먼저 본다. 반대로 '분리', '병행', '보행자 우선 공유' 같은 표현이 나오면 각각 보차분리방식, 보차병행방식, 보차공존방식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혼용은 무분리 공유, 공존은 보행자 고려 공유, 병행은 나란한 분리, 분리는 완전 분리이다.

NoteBase

문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

② 시가화조정구역

③ 기반시설부담구역

④ 도시혁신구역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국토계획법상 각 용도구역·관리수단의 목적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밀도를 낮추기 위해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추가 설치는 어려운 곳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구역이다.

핵심 구분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을 새로 깔기 어려운 지역에서 개발밀도 자체를 낮추는 수단이다. 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용지를 확보하게 하는 수단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은 시가화를 일정 기간 유보하는 구역이고, 도시혁신구역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개발을 위한 구역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문제의 문구인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다.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설치가 곤란하다는 점과 밀도규제를 강화한다는 점이 핵심 표지이다.
2번 X: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위해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이다. 틀린 표현은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이다. 올바른 표현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화를 일정 기간 유보하는 구역이다'이다.
3번 X: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개발로 인해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틀린 표현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올바른 표현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 또는 용지 확보 부담을 지우기 위한 구역이다'이다.
4번 X: 도시혁신구역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틀린 표현은 '기반시설 부족 예상과 설치 곤란을 이유로 밀도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올바른 표현은 '창의적·혁신적 도시공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도시혁신계획이 적용되는 구역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표현만 보고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섞었을 가능성이 높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설치가 곤란하여 밀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설치가 필요하여 설치비용·용지확보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과 '건폐율·용적률 강화'가 함께 나오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판단한다.
'기반시설 설치 또는 용지 확보'가 나오면 기반시설부담구역, '시가화 유보'가 나오면 시가화조정구역,
'창의적·혁신적 도시공간 개발'이 나오면 도시혁신구역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설치가 곤란하면 밀도강화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설치가 필요하면 부담부과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다.

NoteBase

문 16. 「표준시방서(KCS 34 40 25 : 2019)」상 잔디식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반을 토심 0.2m로 경운한 후 흙덩이를 잘게 부수고 불순물을 제거한다.

②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하여 광합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뿌리에 붙은 흙을 잘 털어 새로운 토양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성화 작업을 해야 한다.

④ 잔디의 규격은 가로 50cm, 세로 50cm, 두께 5cm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KCS 34 40 25:2019의 잔디식재 기준 중 식재기반조성, 운반·보관, 잔디 규격을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다.

용어 풀이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m 정도로 잘라 산파한 뒤 흙을 덮는 방식이다.

핵심 구분

잔디 운반 시에는 햇볕 노출을 금지하고 습기를 유지한다. 보관 시에는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일반잔디 규격은 가로×세로 0.18m×0.18m, 0.21m×0.21m, 0.3m×0.3m, 두께 0.03m를 기준으로 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시공 대상지의 큰부스러기와 쓰레기를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내용은 시공일반 기준과 일치한다.
2번: X. 잔디 운반 시에는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해야 한다. 틀린 표현은 '햇볕에 노출하여 광합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이다. 올바르게는 '햇볕에 노출하지 않고 습기를 유지하도록'이다.
3번: X.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틀린 표현은 '뿌리에 붙은 흙을 잘 털어 새로운 토양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성화 작업을 해야 한다'이다. 올바르게는 '보관 시 뿌리 흙의 탈락을 막아야 하며, 풀어심기일 때만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잘라 사용한다'이다.
4번: X. 일반잔디 기준 규격은 가로×세로 0.18m×0.18m, 0.21m×0.21m, 0.3m×0.3m, 두께 0.03m이다. 틀린 표현은 '가로 50cm, 세로 50cm, 두께 5cm'이다. 올바르게는 '기준 규격은 18cm, 21cm, 30cm 계열의 정사각형이며 두께는 3cm'이다.

오답 포인트

운반·보관 기준과 풀어심기 재료 기준을 섞으면 2번과 3번을 맞다고 착각하기 쉽다. 규격도 현장감으로 크게 추정하면 4번 같은 과장된 수치에 속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준시방서 문항은 먼저 금지사항과 수치를 찾고, 다음으로 운반·보관 기준인지 시공방법 기준인지 재료 규격 기준인지를 나누어 대조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잔디는 햇볕 노출 금지, 습기 유지, 뿌리 흙 보존이 기본이고, 일반잔디 규격은 0.18·0.21·0.3m 정사각형에 두께 0.03m이다.

NoteBase

문 17. 조경재료 중 금속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도, 경도, 내마모성 등 역학적 성질이 뛰어나다.

② 열과 전기의 양도체로 전성과 연성이 높다.

③ 가공설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

④ 변형과 가공이 자유롭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재료로서 금속이 가지는 일반적 장점과 한계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금속은 강도·경도·내마모성이 크고 열·전기의 전도성이 높으며 소성변형이 가능해 가공성이 좋은 재료이다. 반면 부식 우려가 있고 가공 설비와 제작 비용의 부담이 비교적 큰 편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금속은 강도, 경도, 내마모성 등 역학적 성질이 우수하여 구조재나 시설물 재료로 쓰기 좋다.
2번: O. 금속은 열과 전기의 양도체이므로 전성과 연성이 크고 열전도성·전기전도성이 높다는 설명이 맞다.
3번: X. 틀린 부분은 "가공설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이다. 실제로는 금속은 절단, 용접, 주조, 압연 등 가공 설비가 필요하고 제작 비용도 대체로 저렴한 편이 아니다.
4번: O. 금속은 연성 및 전성이 있어 굽힘, 인발, 압연, 단조 등으로 변형과 가공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3번의 "가공이 쉽다"와 "설비가 적게 든다"를 같은 뜻으로 착각하면 틀린다. 금속은 성형과 변형은 용이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설비와 제작비까지 낮다는 뜻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료 문제에서는 강도·전도성·가공성 같은 재료 자체의 성질과, 설비비·제작비 같은 경제성을 분리해서 본다. 금속의 장점은 물성 쪽에 많고 비용 부담은 별개의 약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금속은 강하고 잘 통하고 잘 가공되지만, 설비와 비용 부담은 작지 않다.

NoteBase

문 18. 「조경기준상 대지안의 식재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지면적 중 조경의무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m 이상으로서 $1m^2$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m^2$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기준」 제4조와 제5조에서 정한 식재면적, 자연지반, 조경시설공간의 기준 수치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용어 풀이

식재면적은 조경면적 중 수목이나 잔디 등 식물을 심은 부분의 면적이다.
조경시설공간은 파고라, 벤치 등 조경시설을 설치한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이다.
자연지반은 하부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지반으로 공기와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이다.

핵심 구분

식재면적은 조경의무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자연지반은 대지면적 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 1미터 이상이면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1번(O): 「조경기준」 제4조에 따라 식재면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식재의무면적의 최소비율을 그대로 적은 문장이므로 옳다.
2번(X): 자연지반 의무비율을 50퍼센트로 적은 것이 틀렸다. 「조경기준」 제5조는 대지면적 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자연지반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틀린 표현은 \"50퍼센트 이상\"이고, 올바른 표현은 \"10퍼센트 이상\"이다.
3번(O): 「조경기준」 제4조는 하나의 식재면적이 한 변의 길이 1미터 이상이면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최소 폭과 최소 면적을 함께 요구하는 기준이므로 옳다.
4번(O): 「조경기준」 제4조는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1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조경시설공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면적 기준을 그대로 적은 문장이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식재면적의 50퍼센트 기준과 자연지반의 10퍼센트 기준을 같은 숫자로 외우면 2번 같은 함정에 걸린다.
식재기준과 배치기준은 조문도 다르고 수치도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묻는 대상이 식재면적인지, 자연지반인지, 조경시설공간인지 구분한 다음 해당 수치를 대입하면 된다.
식재면적은 50퍼센트, 자연지반은 10퍼센트, 하나의 식재면적은 1미터와 1제곱미터,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은 10제곱미터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식재 50, 자연지반 10, 식재 한 칸은 1미터·1제곱미터, 시설공간은 10제곱미터이다.

NoteBase

문 19. 수목 굴취 시 뿌리분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이식 적기가 아닌 때에는 분을 약간 작게 뜬다.

② 세근 발달이 느린 수종은 분을 작게 뜬다.

③ 근원지름에 대한 뿌리분 지름의 비는 일반적으로 교목보다 관목이 크다.

④ 일반적으로 활엽수는 침엽수보다, 낙엽수는 상록수보다 분을 크게 뜬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목 굴취 시 뿌리분의 크기를 정할 때 이식 적기 여부, 수종의 세근 발달 특성, 수형별 근원지름 대비 뿌리분 지름 비율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뿌리분은 굴취할 때 잔뿌리와 토양을 함께 보존하는 부분으로, 활착이 불리할수록 크게 잡는다. 이식 적기가 아니거나 세근 발달이 느리거나 상록성·침엽수 성격이 강할수록 뿌리분을 크게 잡는 경향이 있다. 근원지름에 대한 뿌리분 지름의 비는 일반적으로 관목이 교목보다 크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약간 작게"이다. 이식 적기가 아니면 증산과 활착 스트레스가 커지므로 뿌리분은 작게가 아니라 더 크게 떠야 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세근 발달이 느린 수종은 분을 작게 뜬다"이다. 세근이 늦게 형성되는 수종일수록 굴취 후 흡수근 확보가 중요하므로 뿌리분을 더 크게 떠야 한다.
③ O: 근원지름 대비 뿌리분 지름의 비는 일반적으로 교목보다 관목이 더 크게 적용된다. 관목은 줄기 규모에 비해 뿌리 퍼짐과 잔뿌리 확보 비중이 커서 상대적으로 큰 뿌리분이 필요하다.
④ X: 틀린 부분은 "활엽수는 침엽수보다, 낙엽수는 상록수보다 분을 크게 뜬다"이다. 일반적으로는 침엽수와 상록수가 활착이 더 까다로우므로 활엽수와 낙엽수보다 뿌리분을 더 크게 뜬다.

오답 포인트

이식이 불리한 조건일수록 뿌리분을 크게 잡는다는 원리를 거꾸로 묻는 선지가 함정이다. ①과 ②는 모두 "불리한 조건인데 작게 뜬다"로 뒤집었고, ④는 활엽수·낙엽수와 침엽수·상록수의 활착 난이도를 반대로 섞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뿌리분 문제는 활착이 어려운 조건인지부터 본다. 비적기 이식, 세근 발달 불량, 상록수·침엽수처럼 이식 스트레스가 큰 조건이면 뿌리분을 크게 잡는 방향이 맞고, 수형 비교에서는 관목의 비율이 교목보다 크다고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활착이 까다로울수록 뿌리분은 크게, 비율 비교는 관목이 교목보다 크게 잡는다.

문 20. 「조경설계기준(KDS 34 30 10 : 2019)」상 일반식재기반 조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양은 유기질이 풍부하고 투수성과 통기성이 양호하며 토양산도가 중성에 가까운 토양을 사용한다.

② 식물의 생육토심이 1m 이상인 곳에서는 지하수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생육토심 1m 이하인 곳에서는 정체수 방지를 위해 심토층 배수시설을 한다.

③ 지표면의 빗물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표면의 기울기는 2% 이상으로 하며, 지표면 기울기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지표면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

④ 식물의 생육환경이 열악한 매립지나 인공지반 위에 조성되는 식재기반이나 답압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의 토양은 '상급' 이상의 토양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일반식재기반의 토양 조건, 배수 기준,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생육토심은 식물이 뿌리를 뻗어 생육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하는 유효 토심이다.
토양평가 등급은 식재용토의 적합성을 상급·중급·하급·불량으로 나눈 기준이다.

핵심 구분

일반적인 식재지는 하급 이상을 적용한다.
매립지·인공지반·답압 우려지는 중급 이상을 적용한다.
고품질 조경용 식물 식재지나 건전한 생육을 특히 요구하는 곳은 상급을 적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일반식재기반의 토양은 유기질이 풍부하고 투수성·통기성이 양호하며 토양산도가 중성에 가까운 토양을 사용하는 것이 기준에 맞다.
② O: 생육토심이 1m 이상이면 지하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m 이상 되도록 하고, 생육토심이 1m 이하이면 정체수 방지를 위한 심토층 배수시설을 두는 기준이 맞다.
③ O: 표면배수 기준은 지표면 기울기 2% 이상 확보이고, 기울기 10% 이상일 때는 침식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④ X: 매립지나 인공지반 위 식재기반, 답압 피해 우려지는 상급이 아니라 중급 이상의 토양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틀린 표현: '상급 이상의 토양평가 등급'
올바른 표현: '중급 이상의 토양평가 등급'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열악한 식재환경에 필요한 기준을 고품질 식재지 기준과 바꿔 놓은 함정이다. 매립지·인공지반·답압 우려지는 중급 이상이고, 상급은 고품질 식물 식재지에 적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토양평가 등급 문제는 먼저 대상지를 일반 식재지, 열악지·답압 우려지, 고품질 식재지로 나눈 뒤 하급·중급·상급을 대응시키면 빠르게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일반 하급, 열악·답압 중급, 고품질 상급으로 정리된다.

NoteBase